

[H 갤러리]

JUNE COLLECTION

6. 1. – 6. 30.

PHILIP. HAN.

Marc Chagall(1887 러시아 제국 - 1985, 프랑스)

6. 29. 수. 1911 년 작품 감상



The Rain, 1911.

우산을 든 한 사람에게 손을 뺐친 작품 속 저 이의 결말은 좀 전 내 모습일 것이다. 살금살금 내리는 가는 비에 무슨 심산으로 걷기 채비를 하고 나섰는지 모르겠다. 곧 그치겠지라는 생각뿐이었다. 걷기 기록 앱을 실행하고 나선 첫걸음은 가벼웠다. 한 뼘 남짓한 나뭇잎으로 살짝살짝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을 피한 고양이 낮잠은 진풍경이었다. 걷는 속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.

마크 샤갈 작품 The Rain · 1911 속 검은 구름이 그림을 빠져나와 내가 걷는 하늘을 덮은 듯했다.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1910년 파리에 온

샤갈이 어느 비 오는 날 고향 비테프스크를 향수하며 그린 작품이다. 곧 쏟아질 빗줄기를 피하려는 부산한 농부 모습이 마치 동화 삽화 같다. 가축을 모는 농부 비 구름 사이 농부, 마구간에 말을 들이고서야 안심하는 농부, 우산을 들고 한 발 내디디려는 찰나인 사람과 한 손을 뺀 채 엄지를 치켜 올린 듯한 포즈를 취한 사람 모습은 우스꽝스럽다.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그릴 때마다 혼자 킁킁 웃고 그리워하며 파리의 외로움을 달랠 것 같다.

이 작품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는 당시 러시아 회화 특성과 지금 막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입체파와 야수파 물결이 한 데 어우러져 있는 마치 바닷물과 민물이 어우러져 고고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. 캔버스 전체를 뒤덮고 있는 어둑어둑하고 무거운 배경은 비단 비 구름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. 또한 작품 중앙에 우뚝 선 나무는 색색이 밝고 진한 것이 야수적이고, 두 사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집 지붕은 입체적이기 때문이다.

이 그림 속 시간 즈음에 발길을 돌렸어야 했다. 그 만보 걸기가 뭇이라고 가는 비 맞고 그 가는 비 두 배 되는 빗줄기를 걷고 우르르 팡하는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걷는 데 그냥 웃음이 났다. 이 빗 속에 각종 유해 물질이 있다고 한들 살갓에 닿는 빗방울은 흰 면을 온몸에 감은 듯 보드랍고 감칠맛이 났다. 철벽철벽 소리는 행진곡 같기도 했다. 아마 그랬을 것이다. 샤갈이 The Rain 을 완성하고 비가 내렸다면, 빗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. 고향 소식을 안고 파리까지 날아온 비테프스크 비 구름이기에 흠뻑 젖어도 마냥 기쁘고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. 내게도 오늘이 그런 날이다.

Epilog



1926 Couple in the Rain oil on canvas

유월 그 즈음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. 여름을 알리고 장마철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요란하지만 내게는 어느 해 그 날을 떠 올리게 하는 날이다. 마치 매년 치러야 할 연례 행사이기도 하다. 비가 온 날이면 그 사람 기분은 유난했다. 말 수는 적었고 비 내리기도 전에 눈동자는 이미 빗물이 가득했다.

그 모습을 옆 모습으로 바라보는 내가 한 일이라곤 자동차 썬 루프를 미리 깨끗하게 닦아 두는 일뿐이었다. 고개를 뒤로 젖히고 썬 루프 창으로 바라보는 비 오는 날 풍경이 그 사람에게 유일한 위로 같았기 때문이다. 가끔 썬 루프를 살짝 개방하고 그 사람 얼굴로 쏟아져 내리 꽂히는 빗방울에 왓, 차가~ 라는 짧은 한 마디라도 없었다면 내 존재는 비 오는 날 만큼은 어디에도 없었다.

하지만 그 일이 비 오는 날 그 사람과의 추억 전부는 아니다. 운 좋게 어둠 속에서 장마 비가 그치고 처마 한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그 사람을 나의 그 사람으로 돌려보낸 날은 마치 1926년 마크 샤갈 작품 Couple in the Rain 과 닮았다. 유월 그 즈음 나는 매년 그 추억으로 비 내리는 하루를 보낸다.

한데 내년 유월 이 즈음은 다른 추억 하나가 더 붙어 따를 것 같다. 내:일을 여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EBS 채널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일이다. 생경하고 경이로운 기분을 유월 동안 맘껏 누렸고, 많은 분이 본방사수하며 인증과 함께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. 마치 돌잔치 주인공이 된 듯도 싶어 여차하면 돌잡이 하듯 마이크를 잡고 라이브로 방송할 뻔했다.

이런 관심과 성원이 감사할 따름이다. 이 같은 기회가 내게 닿아 내 마음속 새 살을 돋게 하고 꽃을 피우고 가꾸는 심성을 간직하라는 계시를 받은 것 같아 볼 일 없는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. 이 일이 없었다면 고마움도 살가움도 없이 한 계절 한 시절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. 구름 위에서 이제 막 내려왔다. 하늘 위에서 본 내 삶이 비록 땅콩만 했지만 현실 속 내 삶은 점점 숲이 되고 있었다. 이 곳을 더 숲답게 일구는 일이 신이 내게 준 새로운 사명이다.

매월 [H갤러리]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작가님께 진심 감사드립니다. 7월은 장대 비와 바늘 같은 햇빛이 가득한 날이 많습니다. 모쪼록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